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 하는 성장
	보도	2019.5.29.(수) 조간	배포	2019.5.28.(화)

책 임 자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주 홍 민(02-2100-2970)	담 당 자	김 영 진 사무관 (02-2100-2973)

제 목 : [알기쉬운 핀테크2] 클라우드와 금융혁신

- **클라우드**는 AI ·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의 플랫폼으로 **디지털 전환**을 이끄는 **슈퍼노바(Super Nova, 초신성)**가 될 전망
-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**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속속 구축.** 국내 클라우드 기업도 **금융 특화 제휴**(코스콤-네이버)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중
- 정부는 **금융 클라우드 워킹그룹** 운영, **QA전용 사이트** 개설, 핀테크 기업 **예산 지원** 등 **안전한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**할 계획

Ⅰ. 클라우드(CLOUD) : 금융플랫폼으로써 역할

◈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**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**(CSP, Cloud Service Provider)로부터 **필요한 만큼 IT자원을 빌려 쓰고, 탄력적으로 활용**하는 컴퓨팅 방식

□ 최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**클라우드는 대량의 데이터를 낮은 비용에 처리**할 수 있는 **플랫폼 기술***로 부각

* 아마존(AWS), 구글, MS 등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는 고객이 **쉽게 데이터 분석**을 할 수 있도록 **AI, 빅데이터 등 데이터 관련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제공**

○ **클라우드**는 컴퓨팅 세계의 **'슈퍼노바'**(MS 설계자, Craig Mundie)

○ **클라우드**는 **'데이터 고속도로'**의 기반('18.8월,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회의)

□ 금융의 디지털화가 폭넓게 확산되고, **클라우드를 기반**으로 **AI·빅데이터 등의 기술**이 **금융혁신을 주도**할 것으로 기대

○ 특히, 5G 상용화로 수많은 기기가 연결되고 **대량의 데이터가 생성·처리**될 경우 **클라우드의 활용성이 더욱 확대**

* 5G 통신기술의 특성상 **통신 지연시간(latency)이 1/10 이하로 단축**되고, **금융 클라우드의 데이터 처리량·속도는 보다 증가**

Ⅱ. 금융 클라우드의 중요성

1. 신기술 활용의 플랫폼

□ AI,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활용시 매우 유익한 **플랫폼**으로 활용

○ **(AI) 빠른 기계학습(머신러닝/딥러닝) 처리**를 위한 고가의 **고성능 컴퓨팅 자원**을 제공

○ **(빅데이터) 수십, 수백 TB*의 데이터 용량**을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**데이터 분석 서비스, 플랫폼을 제공**

* 1TB = 1,024기가 바이트를 의미(TB : 10^{12}를 의미하는 테라와 데이터 표시 단위인 바이트가 합쳐진 말)

2. 혁신서비스 확산의 기반

□ 금융회사·핀테크 기업이 **기술·시장 변화**에 **탄력적으로 대응하고, 비용 부담 없이 혁신서비스를 시도**하는 환경을 제공

○ **(금융회사)** **대량의 데이터**를 용이하게 **수집·분석**할 수 있고, 기존 **금융서비스 장애·예방**에도 활용

○ **(핀테크 기업)** 비용 절감으로 **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**하고, 기존 금융회사와의 **경쟁 기반을 마련**

3. 금융회사 · 핀테크 기업간 협력강화의 매개체

□ 국내외 **금융회사·핀테크 기업간 협력이 강화**되고 있는 가운데,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**협력시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를 활용**

○ 우리은행은 **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(scale-up)**을 위해 **클라우드 기반 오픈 API 활용, 테스트베드** 등을 제공*(우리은행 디노랩)

* **클라우드와 은행의 금융API를 결합, 디지털 테스트베드를 운영**
→ 금융API + 내외부 협업 Cloud + 기술·서비스 컨설팅(멘토링 등)

○ KB는 **핀테크 기업과의 협업**을 통해 **혁신적 모델을 창출**할 수 있는 **개방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**을 추진(KB Collabo플랫폼)

< 금융분야 클라우드 제도개선('19.1월 시행) >

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이용

Ⅲ. 금융 클라우드 동향

□ **[국내]** ‘21년까지 **연평균 20.5%씩 성장**하여 **3.44조원**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[17, 가트너(글로벌 IT컨설팅그룹) 보고서]

○ 아마존(AWS), MS, 구글 등 **글로벌기업이 시장을 주도**하는 가운데 KT, 네이버 등 **국내 업체들도 시장을 확대**(‘18년 기준, 공급업체 800여개)

* **클라우드 공급 기업수 :** (‘15) 353개사→ (’18) 804개사 (연평균 31.6% 성장)
** **총매출액 :** (‘15) 7664억원→(’18) 2.4조원 (연평균 46.4% 성장)

□ **[해외]** ’21년까지 **연평균 약 17.6% 성장**하여 **약 280조원**에 이를 전망(‘17, 가트너 보고서)

○ 한편, 현재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(AWS), MS, IBM, 구글 등 **글로벌기업들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***하고 있는 상황

* (시장점유율, ‘18년 가트너) - AWS(34.4%), MS(14.4%), IBM(7.2%), 구글(6.6%) 順

□ **[사업자 동향]**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의 **금융 클라우드 진출·투자가 확대**되고 있음

○ 주요 글로벌 사업자들은 **국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**하는 등 **적극적 투자를 진행중**(아마존(AWS), MS, IBM은 ’16~ ’17년 진출)

* **오라클**은 **‘19년 중 국내 데이터 센터를 오픈**할 계획이며, **구글도 ’20년 초 국내 데이터 센터를 마련**함으로써 **국내 클라우드 사업 강화를 추진**

○ 국내 사업자의 경우 **사업자간 제휴·협력** 등을 통해서 **금융권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**할 계획

* **코스콤**은 **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**과 금융 클라우드 기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, 클라우드 기반 **데이터 오피스**, **금융 클라우드 존**을 구축 예정(‘19.하)

Ⅳ. 금융 클라우드 추진방안

1. 클라우드 활용 촉진

□ 금융회사의 **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연중 지원**하고, **클라우드 QA 전용사이트**를 개설해 **금융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**(6.3일)

* 금융보안원을 통한 **안전성 평가 지원** 및 **안전성 평가 안내서** 마련(연중), **금융 클라우드 QA 전용 사이트** 개설(6.3일, 금융보안원)

□ 금융당국, 금융회사, 클라우드 제공자, 전문가가 참여하는 **'금융 클라우드 워킹그룹'** 운영하여 **현장과 소통**(6월~)

2. 클라우드 리스크 관리 강화

□ **클라우드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점검**(필요시)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**개인신용정보 보호·관리를 강화**

□ **클라우드 전자금융 기반시설**에 대한 **취약점 분석·평가기준**을 **개발**해 금융회사의 전자적 침해 리스크 관리, 보안을 강화

3. 클라우드 이용 지원

□ **핀테크기업 대상**으로 **클라우드 이용** 관련 **보안, 컨설팅, 예산 지원 방안***을 마련함으로써 **혁신서비스의 개발·출시**를 촉진

* 금융혁신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**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클라우드 이용 보조금을 지원**하는 방안 등 모색

※ 별첨 : 클라우드와 금융혁신(상세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